묵묵히 걸어가면서 한발 한발 실천하는 데 게으름이 없어야

☞ 21면에서 계속

도 없고 자기가 할 따름입니다. 지금 빨리 부지런히 가셔서 색경을 보시고 한 팔 들어 보십시오. 거기 그림자가 어떻게 보이나. 그래서 자기부터 알아야 둘이 아닌 도리를 알게 되고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아야 둘이 아니게 나투는 도리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부터 알아라 이런 소리입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불(佛)은 어디 있다는 건가? "불이 어떤 것입니까?" 하니까 해골 쪽을 딱 던져 주거든. "이놈아, 이거야!" 그러고 주니까 아무리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아니 한 이삼 년 지나니까 아, 해골이 말을 하더랍니다. "야, 이놈아! 너, 나처럼 눈도 빼 버리고 귀도 빼 버리고 코도 없애 버리고 혀도 없고 네 몸뚱이도 없고 다 없어야지, 임마! 그래야 너가 어떤 걸 알 거다, 임마!" 그러더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해골을 붙잡고 "야, 임마!" 그러고 그거 가지고 몇 날 며칠 싸우다가 홀연히 알게 됐더랍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의식만 빼면 송장인데 그 해골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그대로 지금 육근의 작용으로써 우리가 육진의 모든 것을 놓고 간다면 바로 육식도 거기 포함해서 둘이 아니게 절대적으로 자기 참자기를 발견할 것입니다. 과거의 자기와 현실의 자기가 상봉할 것입니다.

습에 휘둘리지 않고 싶은데

질문 마음공부를 하면서 참사람이 되고자 발원했는데 자꾸 습에 이끌려 가는 제 자신의 모습에 힘이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습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 중심을 잘 잡고 갈 수 있을는지요.

답변 자기를 자기가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구, 내가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믿는 사람이 이거를 해서 안 되는데….' 하고 꼭 후회가 들어가고 반성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불법을 배우는 데 정말 나를 깨닫는 그 길을 택하려면 후회도 반성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없는 거다 하고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내 마음 근본 주인공 속에 다 같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다. 즉, 직속으로 같이 상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두 각각 논다면 이거는 정말이지 여러분은 자기 몸 하나 추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거를 했든지 뒤돌아보지 마세요. 잘못됐어도 그것은 잘못되게 한 장본인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거기에다 되놓는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것이 정돈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활하는 모든 것이 그냥 참 행이요, 그것이 참 선이요, 행선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왜 잘 써야 하느냐? 여러분이 한 번 잘못 쓰면 이 몸뚱이 속에 업식으로 뭉쳐집니다. 저지른 대로 업식이 돼서 내 몸뚱이에 뭉쳐 있으니 거기에 속지 말고, 잘못되는 것도 업식으로 뭉쳐져 있는 인과로 인해서 나오는 거니까 모든 걸 놔라, 맡겨 놔라.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녹일 수밖엔 없다. 거기서 해결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어떤 때 보면 여러분이 재밌게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있는데 시커먼 게 거기 죽들 앉아 있어도 여러분은 눈이 멀어서 못 봐요. 잠시 잠깐 웃고 즐길 거라면 차라리 그게 뭡니까? 그게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에 그 업식으로 인해서, 업식을 가지고서 여러분한테 바깥에서 오는 거, 안에서 일어나는 거, 그것이 악이든 선이든 찰나찰나 닥치는 겁니다.

> **어떤 거를 했든지 뒤돌아보지 마세요.**
> **잘못됐어도 그 잘못되게 한 장본인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 **그러니 거기에다 되놓는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것이 정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 놔라 이거예요. 모두, 모두 맡겨 놔라. 놓으라니까 무슨 놓을 게 있어서 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대로 믿고 '거기에서 밖에는 해결 못 하고, 거기에서밖에는 감사함을 주지 못하고, 거기에서밖에는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고, 거기에서밖에는 지혜로운 마음이 생겨서 모두 품 안으로 안을 수도 없고 지혜롭게 해 나갈 수 없다, 거기밖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은 거기밖에 없다.' 하고 믿고 나가라 이거예요. 그것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놓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놓고 두 번 놓고 자꾸자꾸 놓아 들어가면 업보로 뭉쳐진 이 중생들이 다 그냥 보살로 화해 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거기에서 호법신도 생기고 수호신도 생기고 화신도 생기고 법신도 생기고 모두가 수효가 없이 생기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좋으냐고요. 가정이 화목해지고 하는 일마다 귀인이 생기고 발이 넓어지고 속의 모든 두려움이 없어져 떳떳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공부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죠.

그냥 묵묵히 일체를 나와 같이 보는 마음으로만 할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실천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공부, 공부' 하지만 사실 공부라는 이름도 붙이지 말고, 지금 바깥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일들, 그건 불쌍한 게 아니라 애처롭습니다. 여러분은 산 사람, 산 물질만 봐도 애처로운 일이 많은데, 죽은 영령들이 부모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마음, 애처롭게 끌고 다니는 그 마음, 세상에, 그렇게 애처로울 수가 없습니다. 인연이 뭐고 사랑이 뭐길래, 자식이 뭐고 부모가 뭐길래, 남편이 뭐고 아내가 뭐길래 그렇게들 인연 줄이 질기고 질겨서 그걸 놓지 못해 붙들고, 애처롭게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사람이 누구나가 몰라서 그렇지 여기서도 살고 있고 저 별성에도 살고 있다. 여기 모습대로 거기도 그 모습을 가지고 사는데 그건 화신입니다. 여기는 이것이 육신이지만, 그 모습들은 화신으로서 모두 보현보살로 화해서 영계들이나 산 사람들이나 다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화해서 직속 왕래를 해 보세요. 얼마나 떳떳한가? 그런 일이 어디 있을까 이러겠죠? 그런 일이 왜 없습니까? 빛보다 더 빨리 왕래를 하는데. 그러니 여러분은 기복으로만 만날 빌고 '아이구, 나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제발 좀 이러지 말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어차피 한 번 죽을 거 뭐, 또 죽을까 봐 그렇게 살려 달라고 애를 씁니까?

나는 이날까지 나 살려 달라고 빌어 본 예가 없어요. 그전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오직 팔랑개비 대만 쥐고 다녔어요. 그게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대만 쥐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우선 내가 대를 쥐면 나한테도 바람도 있지, 지수화풍이 다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건 저절로 돌아갈 거라고요. 나는 그 대만 붙들고 다녔기 때문에 내 육신이 고통을 받든지 안 받든지, 죽든지 살든지 상관을 안 했으니까 고통이 없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 돼요. 죽든 살든 여러분이 '주인공' 하면 벌써 스님과 첨보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스님하고만 첨보하는 게 아닙니다. 저 은하계의 별성들이 다 첨보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한마음이에요. 한마음이라는 걸 소홀히 생각하고 조그맣게 쓰지 말고 좀 더 지혜로운 지각을 가지고서 좀 널리 쓸 수 있는 그런 아량, 지혜, 자비를 가지고 넓게 포용하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나를 깨닫게 해 주소서.' 하는 것도 바깥으로 하지 마세요. 바깥에 누가 있습니까? 그 자리는 천지인하고 연결돼 있으니깐요. 천지인이 따로 있다고 보지 마세요. 전부 한데 있죠. 그것에서 알게 되면은 대천세계를 알게 됩니다. 삼천대천세계 대천연화장불과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과거로 돌아가서 일을 해도 되고, 미래로 돌아가서 일을 해도 되고 이렇게 삼세를 굴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걸 거짓말로 알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인공을 의심치 마시고 계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공을 의심치 마세요. 여러분의 주인공은 광대무변한 뜻을 그대로 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겁니다. 수억겁을 거쳐 나왔기 때문에 경험을 살려서 바로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도 거기에 있는 거고, 여러분을 이끌어서 누진으로부터 오신통을 그대로 하는 것만이, 우리 지금도 오신통을 하고 가지만요, 그 오신통도 떠나서 모든 걸 자유스럽게 자유인이 되게끔 이끌어 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주인공밖엔 없으니까요.

목이 안 돌아가요

질문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자주 목이 잘 안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해서 살길을 찾아야 하는데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될는지요.

답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몸속의 그 생명들이 과거에 살던 인연에 따라서 온 업식들입니다. 정자 난자를 비롯해서 자기 영혼과 더불어, 그 생명들이 인연이 돼서 모두 합쳐진 한 몸뚱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식에서 나오는 야릇한 증세니까, 학생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더 잘 알겠죠.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아는 거, 가고 오는 거, 만나는 거 이 모든 게, 그 다섯 가지 종류의 오신통이라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와 같아요. 그래서 '목이 이렇게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해결할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가 되입력을 하는 겁니다. 되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괜찮아질 수 있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죠. 시장에서 솔이나 수세미 이런 걸 파는, 아주 오래 여기 선원에 다니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기 전에 고개가 그렇게 학생처럼 돌아가질 않아서 왔어요. 그때 내가 상원사에 내려와서 신도집 여관 사무실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와서 절을 하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극진히 삼배를 하는지 남자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내가 볼 때에 '남자가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저렇게 극진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부처님도 안 모셔 놓고 그 방석,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다고 절하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진짜로 믿고 그냥 삼배를 극진히 했어요.

그럴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조건 저렇게 믿고 삼배를 올리는데, 그것은 부처님이 받으신 거지 내가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극진한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한데 이어진 거예요. 동시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목이 그냥 풀렸대요, 가다가 말입니다. 버스 타고 가다가. 그러니 그것이 도깨비장난 같고 요술쟁이 같고 하지만, 우리가 전부 요술쟁이고 도깨비장난이고 탤런트고 그렇습니다. 인생이 모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지금 망망대해에 배 한 척을 각자 띄워 놓은 것과 같아요. 파도가 일고 비바람이 치면 '아이고, 살려 달라' 고 뭐, 아우성을 치게 되죠. 학생도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이죠. 지금 고개가 안 돌아가니까 파도가 치는 거와 같죠. 그러니까 집중을 어디다 해야 하느냐? 아주 일어서서 나 죽는다고 살려 달라고 바깥으로 할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침착하게 가지고, 선장더러 하는 소립니다. '선장! 이 배를 가는 곳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어!'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한마음으로 믿어서 거기에 한마음으로 뭉칠 때, 가는 곳까지 갈 수 있어요. 그와 같이 그 목도 파도가 치다가 선장이 잘 이끌어 가고 그런다면 파도가 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파도친다고 해서 제각기 일어나서 우왕좌왕한다면 배는 뒤집히고 말죠. 영영 고치지 못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겁내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오직 내 몸뚱이를 끌고 가는 선장만이 이끌어 줄 수 있어. 고칠 수 있어.' 하고 그렇게 진짜로, 마음이 묘한 거니까 마음을 그렇게 가지세요, 진짜로 믿고. 그리고 자주 와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해요. 괜히 고개가 왜 그러겠소? 허허허. 그게 세포 하나하나에도 생명이 들어 있어서….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